경남교육 2023-228

아이좋아 경남교육
2023.12 Vol.83

내가 꿈꾸는 소리

▲ 사천 사남초등학교 5학년 구민정

달력의 마지막 장만 남겨둔 12월.
싱그러운 봄과 눈부셨던 여름, 아름다운 가을을 지나
따뜻함이 필요해지는 겨울입니다.

왜 이맘때만 되면 보고 싶은 얼굴이 하나둘 떠오를까요.
함께 마음의 온기를 나누었던 시간이 그리워지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에게도 오랜만에 안부를 묻고 싶은 이들이 있으시겠죠.
혹시 망설여지는 마음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셔도 좋습니다.
연말에는 누구나 따뜻한 안부를 묻고 대답하고 싶어지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얼굴을 떠올리고 계시나요?
서로에게 전하는 다정한 안부가
올겨울 가장 반가운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은 오른쪽 페이지 상단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보이스 아이(VOICE EYE)를 삽입했습니다.
KOR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CONTENTS

Vol.83 2023년 12월 호

발행일
2023년 12월 1일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Tel. 055-278-1788
편집인
홍보담당관 이종섭
기획총괄
홍보담당사무관 전영부·주무관 채선영·김아경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주)큰그림

경남교육, 미래를 만나다

04 특집 기획 1
2023년
경남교육이 걸어온 길

10 특집 기획 2
다시 만나는
〈아이좋아 경남교육〉

14 요즘아이, 별별 꿈
판소리에 푹 빠지다
사천 사남초등학교 구민정

18 경남교육가족을 만나다
양산여자중학교 창업동아리
'스트로베리'

22 학교 변신은 무죄
거점통합돌봄센터 3호
'늘봄 김해'

경남교육, 재미를 만나다

26 방구석 영화관
28 경남교육캘린더
30 힐링필링 경남교육명소
합천으로 떠나는 여행

34 즐겁지 아니한家
86세 박억부 할아버지가
가족을 사랑하는 법

38 우리말 나들이

경남교육, 정보를 만나다

40 진로진학 나침판
42 경남교육뉴스
44 의정소식
46 도정소식
48 독자기고
50 소식지 만족도 조사
51 독자퀴즈

2023년
경남교육이 걸어온 길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북’과 ‘아이톡톡’ 플랫폼을 활용한 빅데이터-AI와 함께하는 수업혁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환경교육,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미래교육원’과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3호’ 개원 등 경남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롯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경남교육이 걸어온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1

생태 전환 교육

자연의 수용능력을 벗어나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은 없습니다.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 문제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교육에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포럼, 13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특구, 생태전환교육 중심의 학생수련기관 재구조화,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과 실천을 이루어냈습니다.

www.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경남교육청, 생태전환교육 빛을 발하다!

환경부 선정 환경교육 우수학교 전국 4개 중 경남에서는 벽방초, 합천평화고 2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벽방초와 합천평화고는 생태환경미래학교, 탄소중립모델학교, 실천교사단, 기후천사단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환경교육 공간 조성, 교육과정 연계 운영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포럼 개최

'행복한 공존을 위한 경남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주제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포럼을 9월 22일 개최했습니다. 포럼 내용을 토대로 생태전환교육 종합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섬진강 교육생태계 프로젝트로 학교 간 교류 활동

화개초등학교왕성분교장 전교생 10명과 토지초등학교 3~4학년 11명 학생들은 5월 12일, 섬진강변 및 송림공원에서 만남을 가지고 자전거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환경교육을 위해 하동-구례 섬진강 교육생태계 프로젝트를 202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생태운동장 조성

경남교육청은 2023년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사업 6곳을 추진했습니다. 생태운동장은 탄소흡수원으로서 생태계의 중요성을 학습하는 공간이자 마을 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습, 놀이, 쉼 등 다양한 생태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학교 운동장의 기능이 새로워졌습니다.

환경교육특구 13개 교육지원청 확대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함안, 창녕, 산청, 고성, 함양, 거창 등 13곳이 2023년 환경교육 특구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환경교육 특구는 시군의 지리적 환경과 특색,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단위의 환경교육 선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미래형 수업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역량은 배움 중심의 미래형 수업 실천으로 가능합니다. 배움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소통과 협력, 새로운 상상과 도전으로 미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배움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이톡톡·아이북을 활용한 에듀테크 수업,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 지원,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로 학생의 삶을 가꾸는 미래 교육을 위해 힘쓴 한해였습니다.

* **해커톤(hackathon)** : 쉬운 말로 '끝장 개발 대회'라고 불리며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 동안 결과물과 시제품을 완성하는 것

학생의 삶을 가꾸는 미래형 수업을 만나다

'2023. 수업나눔한마당'을 10월 25일 개최해 아이톡톡-아이북 활용 미래형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형 수업의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수업나눔한마당은 미래형 수업을 향한 대전환을 위해 학교급을 뛰어넘는 융합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학교급의 수업 사례를 참관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운영되었습니다.

아이톡톡-아이북을 활용한 미래형 수업을 맛보다

'아이톡톡-아이북을 활용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통지 일체화'를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아이톡톡 활용 교육을 위해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자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아이 자람 북(일명 폴리오 북)'도 개발 중입니다. 폴리오 북에는 1년간 공부한 데이터가 담기며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생 개별 성취도의 양적·질적 평가 결과 및 피드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해커톤* 한마당 개최

11월 4일 제6회 해커톤(해킹+마라톤)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탄소중립'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산출물을 구현했습니다. 학생들은 작품제작과 코딩을 통해 실생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미래형 교과서로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선도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은 내실있는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지원을 위해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2023. AI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형 교과서 제작·활용 직무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학교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미래형 교과서 제작 실습 중심으로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미래교육 국제콘퍼런스 개최

경남교육청은 교직원들의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자립과 공존의 미래교육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 미래교육 국제콘퍼런스를 8월 16일 미래교육원에서 개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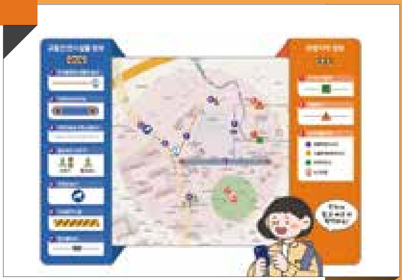
#3

안전

모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은 경남교육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입니다. 2023년 경남교육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안전아이로’는 2023년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등급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개편 적용, 안전학 기숙사 만들기 사업, 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추진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전아이로’ 정부혁신 경진대회 대상 수상!

경남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경남도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 구축한 통학안전시스템 ‘안전아이로’를 바탕으로 최신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구축된 ‘안전아이로’는 2023년 교육분야 정부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이가 보이면 일단 멈춤!

경남교육청은 2023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지난 3월과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속도 30km/h 준수와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에서 뛰지 않기, 걸을 때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등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 하는 교통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안전한 학교 함께 만들자!

올해 주제는 ‘탄소중립’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산출물을 구현했습니다. 학생들은 작품제작과 코딩을 통해 실생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또한 모든 작품을 공유한 뒤 참가 학생들이 전자 투표로 우수작품을 뽑았습니다.

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조리실의 환기설비를 개선하고 경남형 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7월 12일 열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30개 학교의 최종 환기 성능 평가 결과, 후드 배기량과 유속이 평균 3배 증가했고, 유해 인자가 약 3분의 2줄었습니다. 또한 시범학교 급식종사자 15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이상이 8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한문철 변호사 초청 특강

‘한블리’ 한문철 변호사를 초청하여 9월 18일과 19일, 창원과 진주에서 보호자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더 새로운 배움과 더 큰 미래를 위한 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개원

미래교육원은 올해 9월 개관한 공교육 최초 미래교육 특화 허브기관으로 인공지능(AI), 로봇주행, 3D 모델링 등 체험 중심의 콘텐츠로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늘봄 김해 개관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김해'가 9월, 문을 열었습니다. 김해 삼문초 교실 20개를 새 단장해서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합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합니다.

경남진로교육원 첫 삽

7월 19일 밀양시 교동에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기관인 '경남진로교육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총 479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함안도서관, 새터에 자리잡다

함안도서관이 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16, 새로운 터에서 2월 28일 신축 개관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의 공간,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한 터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미숭산교직원 휴양림 개원

경남 교육 가족의 쉼터, 미숭산교직원 휴양림이 합천군 야로면에서 11월 9일 개원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교육공동체의 삶이 존중되는 학교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행복나눔학교 134개로 확대 운영
행복나눔학교 14개, 행복학교 120개

마을과 지역으로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고, 지역과 소통하며 상생하기 위한 지역 맞춤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행복(나눔)학교를 134개로 확대하고 교육 공간을 마을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행복나눔학교는 행복학교의 철학과 문화를 확산하는 경남형 미래학교로, 행복학교는 배움과 협력이 있는 공교육 모델학교로 4년간 운영됩니다.

교육 공간을 마을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학교

의령고등학교가 2023년 3월 '전국 1호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총사업비 147억여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4,873m^2규모로 전면 개축하였으며 경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령고등학교

사천 용남고등학교

사천 용남고등학교가 2023년 7월,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고정관념을 뒤집은 설계로 사업 시작 단계부터 전국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꿈과 열정을 힘껏 응원했습니다

경남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이 바로 경남교육의 미래입니다. 올해는 학생과 선생님의 다양한 삶과 꿈이 빛난 한 해였는데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했습니다.

- **대학진학 콘퍼런스 개최**

경남 학생의 우수성 홍보, 대학 진학 정보 수집, 학교와 대학의 소통을 위한 행사로 37개 지역 대학 입학관계자를 초청해 진학 콘퍼런스를 4월 26일 창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아이좋아 대학진학박람회 개최**

전국 대학 입학 관계자와 입학사정관, 진로 전담 교사, 대학진학전문위원단이 참가한 대학진학박람회가 7월에 열렸습니다.

- **제6회 대한민국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개최**

함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국 오케스트라 연주 학교와 단체가 모여 지난 8월 '제6회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 **경남학생의회 운영**

도내 학교 학생회장 중 40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경남학생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건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경남도의회와 연계한 모의 의회를 도의회 본의회장에서 9월 7일 진행하였습니다.

- **다문화교육박람회 개최**

다문화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10월, 김해박물관 일대에서 '2023 경남다문화교육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의 2023년 수상 소식을 전합니다

01.26. 경남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02.01 경남교육청, 재정집행 우수기관 선정 75억 확보

02.16 직업교육 혁신지구 부총리 표창 7개 쾌거

08.03 경남교육청, 2년 연속 '발명교육 최우수교육청' 선정

09.21 경남교육청, 전국영농학생축제 전국 1위 쾌거

10.23 경남 직업계고, 전국기능경기대회서 금5, 은6, 동14 등우수한 성적 거둬

2023년을 보내며
다시 펼쳐보는
아이좋아 경남교육

2023년 한 해 동안 <아이좋아 경남교육>에서 소개한 경남교육가족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우리를 미소 짓게 했고, 어떤 이야기는 우리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도 고루고루 독자분들께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중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는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요? 2023년 한 해를 보내며 <아이좋아 경남교육>에서 만난 이들 중 근황이 궁금한 경남교육가족을 다시 만나보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2024년 새해 소원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글 김달님 사진 백동민

다시 한번 동계체전 알파인스키 4관왕을 꿈꾸며

김해 진례중학교
신혜오

안녕하세요. 4월호에 소개된 신혜오입니다. 아이좋아 소식지에 소개되고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많이 연락을 줘서 신기했어요. 그동안 저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8월에는 전지훈련, 9월에는 꿈나무 대표 팀 하계 체력 훈련을 했고요. 다가오는 12월 10일부터는 꿈나무 대표팀으로선 마지막 동계 훈련을 해요. (내년부터는 청소년 대표팀) 그래서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만큼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커요. 내년 2월에 열리는 제105회 동계체전에서 2년 연속으로 4관왕을 하는 게 목표지만 그사이 실력이 더 좋아진 선수들을 이겨야 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올 한 해는 제가 알파인스키를 시작하고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은 행복한 한 해였어요. 내년에도 다치지 않고 즐겁게 스키를 타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요. 지켜봐 주세요.

4월 호
요즘아이, 별별꿈 출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춤을 추고 있어요

이데니스(15세), 양하임(15세), 서태주(14세), 이가빈(13세)
바모스(VAMOS)

이데니스 그동안 WBC(World Breaking Classic) 한국 예선 게스트 쇼와 의정부에서 열린 브레이킹K 대회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비록 대회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진 못했지만, 2024년을 위해 더욱더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제가 원하는 기술을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태주 바모스 형, 친구, 동생들과 여러 대회나 공연을 통해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소식지에 저희가 나온 걸 보고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이 멋지다고 해주었고, 학교 축제 때 비보잉 공연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가빈 아직 실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친구들이 저의 춤을 보고 칭찬하고 응원해 주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소식지를 보고 담임 선생님께서 대단하다고 해주셔서 뿌듯했어요. 목표가 있다면, 우리 팀이 열심히 연습한 만큼 앞으로 남은 대회 중 세 개 정도는 4강전에 올라가고 싶어요.

양하임 소식지를 보고 몇몇 친구들은 장난으로 놀리기도 했지만, 멋지다고 해준 친구들 덕분에 유명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최근에 제가 계속 노력해온 '에어트랙'이라는 기술을 조금이나마 성공하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2024년엔 '에어트랙' 기술을 완벽히 익혀서 2023년보다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5월 호
요즘아이, 별별꿈 출연

2월 호
즐겁지 아니한가 출연

경기도를 떠나 남해로 모인 열 명의 대가족 이야기

연빈이네 가족

2월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조금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일본에 계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연빈 아빠가 많이 슬프지 않게 가족들이 곁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위로하면서 조금씩 가족의 의미를 배워나가고 있어요. 그사이 연빈이는 경상남도에서 열린 장애인체육대회에서 100m 금메달, 200m 은메달을 땄어요. 작년에 꼴찌해서 올해는 무조건 메달을 따겠다고 했었는데 꿈을 이뤘어요. 우빈이는 처음으로 학교(남해 상주초)에서 1박 2일 둥지 탈출 여행을 갔어요. 부모님과 형이 아닌 친구들과 간 여행이 즐거웠는지 벌써부터 내년 여행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올해는 가족들에게 아픈 일이 많았는데 새해에는 가족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 1월, 우리 가족이 함께 시작한 가게가 더욱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60여 년을 기다린 꿈같은 학창시절

평균 연령 78세
거창아림고 1학년 실버반
하성원

안녕하세요. 거창 아림고 실버반 하성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체육대회 날엔 우리 실버반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10대 학생들과 겨뤄보고, 옆 반 학생들을 신나게 응원도 해보고요. 처음 가보는 현장학습도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찾아가서 여러 체험도 해보았는데,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되니 다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수학도 재미있고, 영어도 재미있고, 통합사회도 재미있어요. 곧 기말고사라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잘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특히 영어는 작문을 해야 해서 골치가 아픕니다. 딱 50점만 나오면 좋겠어요. 2023년은 제 나이 여든에 거창 아림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잊을 수 없는 해죠. 그동안 돈 버는 데만 몰두하며 살았는데 이제라도 학교에 다니고 있자니 인생을 새로 사는 기분입니다. 내년에도 건강을 잘 유지해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5월 호
열정을 만나는 시간 출연

제가 올해 봄, 근무지를 옮기면서 무동초 학생들과 함께한 환경 동아리 활동을 용남초 학생들과 이어가고 있어요. 한 해 동안 학생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중 저희 반은 3월부터 지금까지 물티슈 대신 물수건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학생들과 학교 근처의 반송시장을 찾아가 음식 포장 시 다회용기를 사용해달라는 '용기내' 캠페인도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무려 35개의 상점이 동참해 주어서 학생들도 아주 뿌듯해했죠. 지난 4월 22일(지구의 날)에는 아파트 한 동 소등하기 캠페인을 함께 했어요. 학생들이 한 아파트의 180가구를 직접 찾아가 문고리에 포스터를 걸어두었고, 22일 당일엔 관리사무소에 부탁을 드려 학생들이 주민들에게 밤 8시에 소등을 해달라는 방송도 했어요. 그랬더니 30초 동안 모든 가구의 전등이 꺼지는 걸 보고 학생들도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보고 싶은 우리 무동초 학생들도, 용남초 학생들도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지금의 경험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주변 친구와 가족,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4월 호
선생님이 더 배웁니다 출연

창원용남초로 이어진 열두 달 환경교실

창원 용남초등학교
임성화 선생님

내 꿈은 미스 트롯! 진주 트로트 소녀

진주가람초등학교 5학년
빈예서

안녕하세요. 트로트를 사랑하는 열한 살 소녀, 빈예서입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방과 후에는 연습실에서 아빠와 함께 보컬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점점 더 저를 찾아주시는 곳이 많아져서 주말에는 대부분 공연을 다니고 있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를 사람들 앞에서 자주 부를 수 있어서 바쁘지만 행복해요. 또 지난여름에 아빠랑 제주도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처음 비행기도 타보고 아빠랑 함께 놀았던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소식은 바로 저의 <미스 트롯3> 출연이에요. 곧 방영될 <미스 트롯3>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할 테니 저 빈예서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7월 호
요즘아이, 별별꿈 출연

판소리에 푹 빠진 국악소녀

사천 사남초등학교 5학년

구민정

국악소녀 민정이의
노래가 궁금하다면?

글 김달님 **사진** 백동민

열두 살. 누군가는 아직 꿈을 확신하기 이르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곱 살에 이미 자신의 꿈을 알아본 민정이는 말한다. 판소리는 자신에게 가족과도 같다고.
그 이유를 물으니 단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한다. "제 삶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서요."
케이팝(K-pop)이 훨씬 익숙한 나이. 유행하는 옷차림보다는 한복에, 누구나 따라 부르는 가요보다는
판소리의 매력에 푹 빠진 국악 소녀. 민정이가 부르는 소리를 따라, 민정이가 꾸는 꿈을 따라 함께 가보자.

한복으로 시작된 판소리를 향한 사랑

민정이는 처음 판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순간을 기억한다. 일곱 살의 민정이는 당시 한복에 푹 빠져있었다. 한복이 너무 예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어느 날엔 한복을 입은 채로 잠이 들었다. 하루는 유튜브에서 한복을 입고 노래를 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게 되었다. 처음 듣는 노래였지만,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아 따라 부르게 되었다. 부르다 보니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 노래가 바로 판소리였다.

"민정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판소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었죠. 제가 너무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사천에서는 마땅히 배울 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민정이가 워낙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여서 진주에서 배울 곳을 찾아봤어요. 그때는 민정이가 너무 어려서 세 살 차이 나는 큰딸을 같이 배워보라고 보냈죠." **최효선(어머니)**

그러나 좋아하는 마음은 누군가가 대신 정해줄 수 없는 것. 집을 떠나 소리를 배우기 위해 합숙 생활을 하던 중, 집으로 오고 싶어 울며 전화하는 큰딸과 다르게 민정이는 꿋꿋하게 그 시간을 버텨냈다. 그 모습을 보며 최효선 씨도 딸의 꿈을 지지해 주어야겠다 마음먹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 말, 개인 사정으로 판소리 공부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때의 민정이 모습을 어머니는 이렇게 회상한다.

"사실은 민정이가 금세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만두기 싫다고 울고, 피아노를 배워보라 했더니 멍하니 앉아 있기만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혼자서 유튜브를 보며 판소리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얘는 그만 둘애가 아니구나, 생각했죠." **최효선(어머니)**

"유튜브를 찾아보니 제 마음을 가장 울리는 분이 바로 김율희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께 꼭 소리를 배우고 싶었는데 다행히 저를 제자로 받아주셔서 지금도 감사한 마음으로 배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더 노력하게 돼요

민정이는 매주 토요일, 판소리 공부를 위해 서울로 향한다. 새벽 네 시 집을 나서야 하는 민정이와 동행하는 것은 언제나 엄마 최효선 씨다. 주말이라 왕복 열두 시간이 넘는 시간을 운전해야 하지만 최효선 씨는 민정이를 위해 시간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다. 그 고마움을 아는지 민정이는 서울을 오가는 차 안에서도 늘 소리 연습을 한다.

01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가족들이 항상 저를 응원해주세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방송 나온 것도 다 챙겨 보시고 주변에 자랑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제 방에 연습실을 만들어주셨어요.”

민정이의 방 한편에는 미닫이문으로 분리된 작은 연습실이 있다. 작지만 혼자 소리에 집중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다. 거울이 붙어있는 책상에는 지금 배우고 있는 판소리 책이 놓여있다. 민정이는 하교 후 집으로 돌아오면 매일 두 시간씩 연습실에서 시간을 보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주말에 배운 소리를 따라 부르고, 고치고 싶은 점과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책에 기록한다. 민정이가 연습하는 동안엔 가족들도 방해하지 않는다.

“최근에 민정이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연습을 하면서도 많이 울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서 민정이를 보는 마음이 참 아팠어요.” **최효선(어머니)**

민정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참가한 <사천 수궁가 전국 판소리 고법·경연대회> 수상을 시작으로 제28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판소리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열 살이 되기 전에 이미 재능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 후 여러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국악 관련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했다. 하지만 민정이가 고학년이 되면서 마음만큼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시기가 찾아왔다. 속상한 마음이 컸지만 민정이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연습에 매진했다.

02

03

02 최근 참가한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03 민정이의 꿈을 누구보다 응원해주시는 할아버지
04 민정이의 소리 선생님, 김율희 선생님과 찍은 사진

04

KOR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그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일까. 11월 초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춘향가 중 이별 대목 1절 통곡을 불렀어요. 노래 자체가 매력적이고 제 목소리와도 잘 어울리거든요. 걱정이 많았는데 대상을 받게 되어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판소리 하면 구민정을 떠올리면 좋겠어요

민정이는 학교에서 전교 부회장을 맡고 있다. 당선 비결을 물으니 민정이는 자신의 노래 실력을 꼽았다.

"선거를 앞두고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친구들은 판소리를 지루해하니까 당시 가장 인기 있는 곡인 <사건의 지평선>을 불렀는데 친구들이 무척 좋아해줬어요. 저의 노래로 친구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 학교에서 민정이의 별명은 어린이 명창이다. 친구들은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한 민정이를 우리 학교 연예인이라며 자랑스러워한다. 민정이의 담임 선생님도 든든한 응원군이다.

"이번에 <아이좋아 경남교육> 소식지에 출연한다고 하니 담임 선생님께서 너무 잘됐다며 안아주셨어요.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 고민할 때도 민정이는 최고라고, 꼭 잘될 거라고 응원해주셔서 힘을 얻었어요."

국악보다는 케이팝이 훨씬 더 익숙한 나이. 민정이가 생각하는 판소리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노래로 부르는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심청가는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을 부를 땐 눈물이 날 만큼 슬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노래로 이야기를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또 판소리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데요. 어려울수록 더 매력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민정이는 최근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회 상금으로 받은 2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해에는 사천시 저소득층 가구를 돕기 위해 200만 원을 기부했다. 소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잘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 민정이의 꿈은 인성이 바른 소리꾼이 되는 것이다.

"국악을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서울에 있는 국악중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가고 싶은 과는 전국에서 두 명만 뽑는다고 해서 걱정이 되지만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말씀처럼 인성이 바른 소리꾼, 자랑스러운 소리꾼이 되고 싶어요."

덧붙여 민정이는 '판소리' 하면 누구나 구민정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말했다. 오늘도 자신의 작은 연습실에서 연습에 매진하고 있을 국악 소녀. 하루하루 민정이는 자신의 꿈을 향해 자라고 있다.

우리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학교에서 창업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양산여중 창업동아리 스트로베리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서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고민한다. 터치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가 있다면 어떨까? 청각장애인이 청인과 대화할 수 있도록 수어를 문자로 변환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어떨까?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머리와 마음을 맞대고 즐겁게 때로는 치열하게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 양산여중 스트로베리(Strong+Barrier free) 일곱 명의 학생들과 김범직 지도교사를 만나보았다.

스트로베리 주요 수상 경력

2023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
2023년 전국 소셜벤처 창업 경진대회 경상권역 대표 1팀
2023년 비즈쿨 캠프 파이널 우수상 1팀
2023년 마음껏 창업하라 최우수1팀 우수1팀 장려 1팀 등

양산여중 창업동아리 스트로베리

왼쪽부터 하미래(1학년)·김채윤(1학년)·김보유(1학년)·안시은(2학년)·박소윤(1학년)·황소연(2학년)·정초인(1학년)

글 김달님 **사진** 백동민

안녕하세요.
스트로베리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이유가 궁금해요.

안시은 “저는 스트로베리 회장을 맡고 있는 안시은입니다. 1학년 때 학교에서 ‘창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듣고 신기해서 동아리를 시작하게 됐어요.”

정초인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연히 한 워터파크에서 어떤 언니들이 무대에 올라 창업 아이템에 대해 발표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스트로베리 언니들이었어요. 그래서 동아리에 꼭 들어오고 싶었어요. ”

<2023대한민국청소년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대화형 AI 키오스크
‘오키’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안시은 “‘오키’는 폐노트북을 재활용한 상하이동식 대화형 AI 키오스크예요. 쉽게 말해 화면 터치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시각장애인, 노약자들을 위해 키오스크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게 하고 터치 대신 말로 주문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해 폐노트북을 활용해 만들었어요.”

어떤 계기로 이런 키오스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안시은 “작년에 저희가 받은 대회 상금 200만 원을 양산시장애인복지관에 기부를 했어요. 김범직 선생님께서 이 동아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대회에서 상금을 받으면 꼭 기부를 하자고 하셨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MOU도 체결하고,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휠체어를 타신 분들께는 키오스크가 너무 높다거나 화면 터치가 어려운 장애인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동아리 친구들과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01

02

01 상금을 양산시장애인복지관에 후원금으로 기부했다
02 대한민국청소년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장려상을 수상했다

아이디어 구현 과정이 궁금해요.
코딩도 다 독학으로 익혔다고요.

안시은 “‘오키’는 시제품까지 제작하는 데 7개월 정도가 걸렸는데요. 지난 3월부터 코딩 강좌를 들으며 공부를 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오키’ 개발을 위해선 꼭 필요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팀에서 디자인 담당인 미래가 디자인한 모형을 3D 프린팅으로 출력했고 상하 이동에 필요한 리니어모터와 제어를 해주는 아두이노를 연결하는 등 모든 과정도 저희가 직접 맡아 했어요. ‘오키’의 주요 기술인 STT(음성을 텍스트로 변환) 구현은 AI 전문가 선생님의 멘토링을 통해 보완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제품이 완성됐을 때 뿌듯했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는다면요?

안시은 “저희가 만든 키오스크를 들고 양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시연을 했던 날이 있거든요. 그때 기존 키오스

크보다 훨씬 편하고 좋다는 의견을 들었을 때 가장 뿌듯했어요. 내년에는 '오키'를 양산 물금에 있는 주상 복합 아파트에 실제 설치하여 상용화 하는것에 협의를 마쳤어요. '오키'를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이 보급하고 싶습니다. "

작년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대화를 돕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요.

황소연 "네. 바로 '수어대화도우미'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수가 약 41만 명이래요. 하지만 TV를 보면 주요 채널의 뉴스는 화면 하단에 수어 통역이 지원되지만, 그 외 프로그램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수어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대화할 때나 미디어를 시청할 때 음성이 입력되면 수어와 자막이 출력되는 '수어대화도우미'를 만들게 됐어요."

03 스트로베리 지도교사 김범직
04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키오스크 '오키'를 시연했다
05 학생들 스스로 코딩 공부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어떤 개발 과정을 거쳤는지 더 듣고 싶어요.

황소연 "저 또한 '수어대화도우미'의 주요 기술인 포즈 추출(수어에 사용되는 손가락의 골격, 얼굴 근육 등을 인식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코딩 기술은 다 스스로 공부했어요. 기억에 남는 일은 개발 초기에 청각장애인 학교인 부산배화학교에 방문해 '수어대화도우미'에 대한 의견을 들은 적이 있어요. 초기엔 음성 정보가 입력되면 수어로 출력되는 기능만 있었는데, 그분들께서 수어를 자막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보완되면 좋겠다고 알려주셨어요. 청인과 소통하는 데 '수어대화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도록요. 덕분에 더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었어요."

스트로베리 활동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요?

박소윤 "여러 아이디어를 직접 내보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면서 창의력이 높아진 것 같아요."

황소연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동기가 확실했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배웠어요.”

스트로베리의 계획이 궁금해요.

안시은 “김범직 선생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라는 말을 자주 해주시거든요. 올해는 우수상을 수상했지만 내년 <대한민국청소년창업경진대회>에서는 꼭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전하고 싶고요. 디지털 소외계층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요. 2024년 스트로베리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MINI INTERVIEW

양산여자중학교 스트로베리 담당 지도교사 김범직 선생님

양산여중은 창업가 정신 함양 중점학교를 3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스트로베리’는 경남교육청 공모 사업에 선정돼 운영 중인 창업 동아리입니다. 덕분에 학생들이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멘토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스트로베리’를 시작한 이유는 입시 중심인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끌어내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점심시간에 만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스스로 공부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창의력, 협업 능력이 길러지고 있어요. 조금씩 성장하는 학생들을 지켜보며 보람되고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올해는 기쁘게도 기업가 정신 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김범직 선생님 주요 이력

교육부 창업가정신 함양 거점학교, 중점학교 운영(2021~2023)
경남교육청 창업체험 교수 학습 자료 개발 집필위원(202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 정신 교육 우수사례 장관 표창(2023)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창업가 정신 함양 교육 (창업체험교육)이란?

창업가(Entrepreneur)란 단어는 ‘시도하다, 모험하다’ 등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동사 ‘entreprendre’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창업가 정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태도나 행동양식을 의미합니다. 창업체험교육은 학생들의 창업가정신과 문제해결력,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안팎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창업가정신 핵심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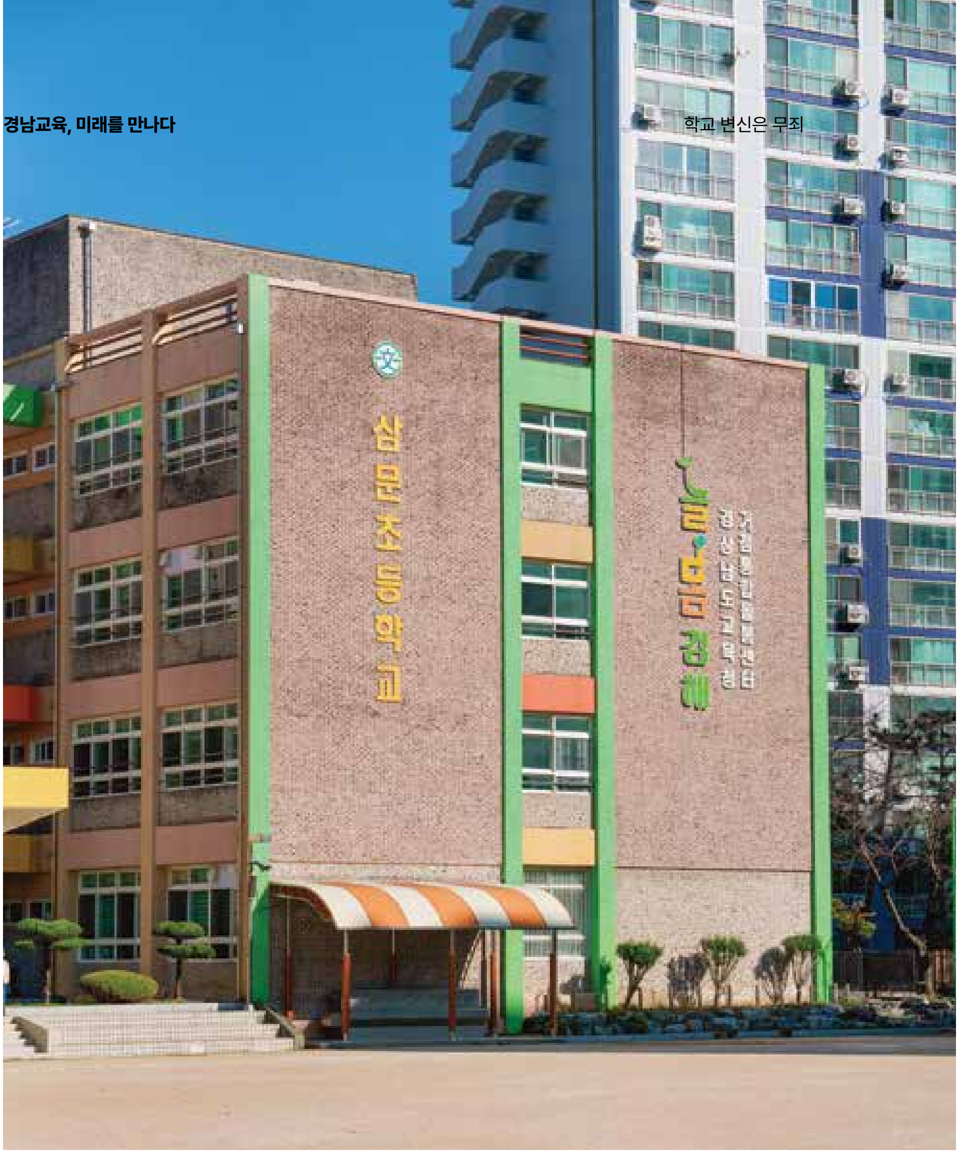
창업체험교육 주요 내용

우리 교육청은 창업가 정신 함양을 확산하기 위해 중점학교(3교)·동아리(16교) 운영을 지원하고, 참여 학생들이 ‘비전캠프’로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아이디어로 동아리 연간 계획을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기업-대학과 연계하여 ‘창업체험교육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 동아리나 진로 수업에서 진행되는 모의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대회 출전 시 발표 자료 컨설팅·시제품 제작 지원 등으로 학생들이 현장감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창업체험교육 정상에 우뚝 서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서 작년에는 창업체험교육 우수교육청으로 선정, 2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최다 수상팀 배출, 2023년 대상 수상의 영광을 이루어 학생의 미래인재 역량과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움누리집 ▸ https://yeep.go.kr/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놀고 함께 커요

거점통합돌봄센터 3호 '늘봄 김해'

경상남도교육청 거점통합돌봄센터 3호인 '늘봄 김해'가 9월 1일 삼문초등학교에 문을 열었다.

'봄처럼 따뜻하게, 늘 아이들을 돌본다'는 뜻처럼, '늘봄 김해' 역시 학교 정규 수업 이후 아이들의 오후 시간은 물론 토요일과 방학, 긴급 돌봄 및 틈새 돌봄까지 책임지며 공적 돌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늘봄'이란?

경상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사회적 돌봄 모델로 제시한 거점통합돌봄센터.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함께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늘봄학교'의 모태가 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1년 3월 '늘봄 명서(창원)'를 시작으로 2호 '늘봄 상남(창원)', 3호 '늘봄 김해'를 개관했다. (3호 늘봄 김해 :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2로 104 삼문초등학교)

글 임승주 사진 백동민

KOR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늘봄 김해는?
학생의 시간을 안아주는 공간

개관 3개월 차, '늘봄 김해'는 삼문초와 인근에 있는 월산초, 주석초, 석봉초, 능동초, 장유초, 김해부곡초, 대청초, 계동초, 덕정초, 김해신안초까지 11개 학교 1~4학년 학생들이 이용한다. 돌봄교실 125명, 방과 후 학교 6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이지만, 아직은 이용자 수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김지혜 장학사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3월에 아이들 1년 일정을 정리하다 보니, 9월에 개관한 저희 기관은 보호자님들에게 조금 덜 알려진 것 같아요. 거점통합돌봄센터인 만큼 겨울방학 때는 인근 학교 중 석면 공사를 해야 하는 학교 학생들이 '늘봄 김해'를 이용하게 될 테고, 내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될 때 더욱 바빠질 것 같아요."

2001년 개교한 삼문초등학교는 2021년부터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세를 보여 왔다. 2021년에는 전교생 459명, 입학생 63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전교생 373명, 입학생은 50명으로 줄었다. 김해시 초등학교 평균 입학생 수가 86명인 것을 감안하면 꽤 적은 숫자다. 이 때문에 빈 교실이 생겨났고, 유휴 공간을 활용해 '늘봄 김해'를 갖출 수 있었다.

특히 삼문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늘봄 김해'를 이용하는 10개 학교가 모두 반경 3km 안에 인접해 있어 돌봄 학생 밀집도가 높다는 점도 주효했다. 삼문초등학교가 거점통합돌봄센터가 되면서 인근 학교의 돌봄교실 대기 수요를 흡수하게 되었고, 한 교실에서 오전에는 정규 수업을, 오후에는 돌봄교실 혹은 방과 후 학교 수업을 해야 했던 불편도 사라졌다.

늘봄 김해는?
섬세함이 빛나는 공간

'늘봄 김해' 현관을 따라 들어가 보니 노랑, 주황 등 화사한 색으로 단장한 공간이 눈에 띈다. '늘봄 김해'는 삼문초등학교 별관 교실 20개를 새롭게 단장해 꾸렸는데,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돌봄교실 5개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실 8개, 어울림실, 놀이공간 등이 갖춰져 있다.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합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만큼 놀이와 배움, 휴식이 두루 가능한 공간들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늘봄 1·2호 운영을 바탕으로, 공간을 보다 섬세하게 구성한 것도 눈에 띈다. 돌봄전담사 회의실을 별도로 두어 공동으로 수업자료를 준비하거나 협의도 수시로 가능하도록 했고, 강사 대기실, 미화원 등 직원 휴게실도 별도로 갖추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 세심한 장치들이 구석구석 빛난다. 문 하나에도 모서리 보호대, 문틈에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 바닥에 붙여진 '문 열림 주의' 스티커까지 꼼꼼하게 갖췄다.

이수민 돌봄전담사 "늘봄이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이다 보니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오는 곳인 만큼 집처럼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돌봄전담사 모두 애쓰고 있고요. 11개 학교에서 아이들이 오다 보니 저마다 숙제나 진도가 달라 모두 챙기기 어려운 지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배움에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봄 김해는?
배움과 보람이 있는 공간

방과 후 학교 수업으로는 스포츠, 음악, 공연, 코딩, 컴퓨터 등 15~2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아이들이 다음 일

01

02

03

정 전까지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을 익히고,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가득하다. 취재 당일, 과학실에서는 요리 수업이, 스마트교실에서는 코딩 수업이 진행됐다. 그중에서도 아이들에게서 '우와' 감탄이 나오는 공간, 피아노실이다. 그랜드피아노를 필두로, 개별 연습이 가능한 방음실 8곳 등 여느 학원 못지않은 시설을 갖췄다.

신지수 방과 후 학교 피아노 수업 교사 "사실 학교에서 인원이나 공간 문제로 교실 하나를 통째로 피아노 교실로 내어주기 힘들거든요. 방음실에 연습용 피아노까지 여러 대 갖춘 학교도 많지 않고요. '늘봄 김해'에서는 제가 가운데 그랜드피아노에 앉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도, 방음실 유리를 통해 연습하는 아이들 모습을 훤히 볼 수 있어서 안심이 돼요. '전국에 이런 시설에서 방과 후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몇이나 될까' 싶은 공간이에요."

'늘봄 김해'를 비롯해 '늘봄'이 기존 초등 돌봄교실과 가장 다른 점은 뭐니 뭐니 해도 운영 시간이다. 평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돌봄 시간을 확대하고, 토요 돌봄, 수시 돌봄, 틈새 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 '늘 돌본다'는 뜻의 '늘봄'이라는 이름에 꼭 맞는 운영 방식을 지켜가기 위해 오늘도 5명의 돌봄전담사를 비롯해 장학사, 행정, 자원봉사자, 안전지킴이까지 많은 교육 가족이 힘쓰고 있다.

이수민 돌봄전담사 "김해 특히 장유 지역에는 맞벌이 부부도 많고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도 많거든요. 특히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이 서툰 한국어로 '우리 아이들 늦게까지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껴요."

개관 4개월 차. '늘봄 김해'는 김해의 첫 통합거점돌봄센터인 만큼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리라 보고 있다. '우리 아이를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돌봄을 보낸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2024년 3월 새 학기부터 보다 많은 아이들과 교육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늘봄'의 이름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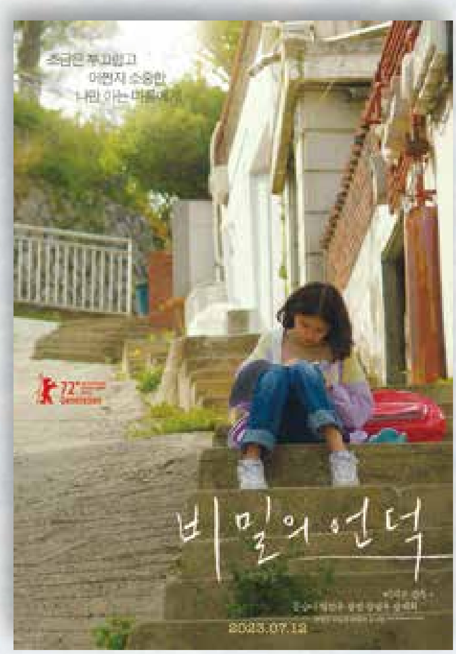
04

01 방과 후 학교 수업 중 하나인 요리교실
02 돌봄교실 단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스태킹 컵 쌓기를 하는 아이들
03 스마트교실에서는 컴퓨터 수업이 한창이다
04 늘 인기가 넘치는 방과 후 학교 피아노 수업
05 영어, 수학 수업도 진행하고 있어 사교육 부담을 덜어준다

05

우리는 영화를 보며 자란다

자극적인 뉴스, 끔찍한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이야기.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하는 이야기.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
올겨울, 우리를 자라게 할 좋은 이야기 세 편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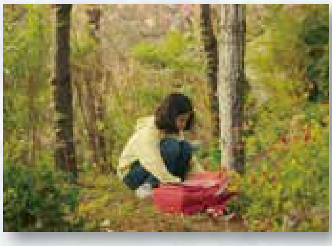


MOVIE • 비밀의 언덕

개봉 2023.07.12. **등급** 전체 관람가 **장르** 드라마
국가 대한민국 **상영시간** 122분

솔직함보다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족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가족은 물음표예요.”
때는 1996년. 초등학생 명은은 시장에서 젓갈 장사를 하는 부모가 부끄럽다. 그래서 5학년 학기 초 친구들이 다 같이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인 가정조사 면담을 하던 중 그만 담임에게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라고 거짓말을 한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소녀 ‘명은’이 글쓰기 대회에 나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하는, 그 시절 나만 아는 이 여름 우리가 꺼내 보는 비밀스러운 이야기.



MOVIE • 어른 김장하

개봉 2023.11.15. **등급** 전체 관람가 **장르** 다큐멘터리
국가 대한민국 **상영시간** 105분

당신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어른은 없고 꼰대만 가득한 시대,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경남 진주의 어느 한약방, 그곳에는 60년 동안 한약방을 지킨 한약사 김장하 선생이 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도 인터뷰 한 번 하지 않고 많은 이들을 도우면서도 자신의 옷 한 벌 허투루 사지 않는 사람. 좋은 어른을 기다리는 당신에게 김장하의 이야기가 찾아갑니다.

MOVIE • 걷기왕

개봉 2016.10.20. **등급** 12세 관람가 **장르** 드라마
국가 대한민국 **상영시간** 93분

조금 느려도 괜찮지 않을까?

4살에 발견한 선천적 멀미증후군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탈 수 없는 만복은 왕복 4시간 거리의 학교를 걸어 다니는 씩씩한 여고생이다. 꿈과 열정을 강요당하는 현실이지만 뭐든 적당히 하며 살고 싶은 그녀의 삶에, 어느 날 뜻밖의 '경보'가 울리기 시작한다! 걷는 것 하나는 자신 있던 만복에게 감탄한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그녀에게 딱 맞는 운동 '경보'를 시작하게 된 것. 공부는 싫고, 운동은 쉬울 것 같아 시작했는데 뛰지도 걷지도 못한다니! 과연 세상 귀찮은 천하태평 만복은 '경보'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을까?

이달의
경남교육 행사를
소개합니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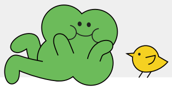
매듭달
2023

-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 김해도서관
-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 마산도서관
-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 창원도서관

체험프로그램 안내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학생 체험 프로그램

초등 1, 6, 7, 13, 14, 21, 28일
중등 13,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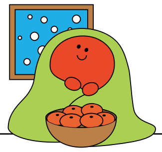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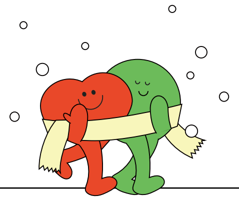
창원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안내

VR프로그램 2, 6, 7, 13, 14, 16, 20, 21, 27, 28일
책담 2층 책고리 / 평일 10:00 / 주말 14:00

샌드 크래프트 2, 3, 9, 10, 16, 17, 23, 24일
책담 1층 누리홀 / 10:00, 16:00

SUN	MON	TUE
3 ● 10:00~11:00 / 1층 책오름자료실 / 독서당 이야기 할머니 <주룩주룩 열대우림> ● 15:00~17:00 / 3층 시청각실 / 영화가 있는 일요일 <미드나잇 인 파리>	4	5
10 ● 10:00~11:00 / 1층 책오름자료실 / 독서당 이야기 할머니 <배고픈 애벌레>	11	12
17 ● 10:00~11:00 / 1층 책오름자료실 / 독서당 이야기 할머니 <파랑이와 노랑이> ● 15:00~17:00 / 3층 시청각실 / 영화가 있는 일요일 <해피피트 2> ● 14:00 / 책담 2층 책벗 / 체험 <책담 하루 수업>	18	19
24 ● 10:00~11:00 / 1층 책오름자료실 / 독서당 이야기 할머니 <세모야 어디가니?> 31	25 성탄절	26





WED | THU | FRI | SAT

1

- 10:00~16:30 / 3층 디지털 자료실 / 참여 <김씨네 영화 감상실> (~12.17.까지)
- 10:00~16:30 / 1층 유아자료실 / <안녕, 오즈> 공간을빌려드립니다 (~12.31.까지)
- 10:00~15:00 / 김해체험분원 / 자연과 친구되는 유아 생태체험 (~12.22.까지)

2

- 16:00~17:00 / 정글북 별당 /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매직쇼
- 10:00~12:00 / 2층 구지봉실 / 책이랑 놀이랑
- 14:00~15:00 / 2층로비 / 인문버스킹
- 14:00~16:00 / 2층 지혜마루 / 김지바×청춘마이크
- 11:00~13:00 / 3층 무학전당 / 영화상영 <애니메이션(가디언즈)>
- 13:00~14:00 / 1층 놀이꽃밭 / 도서관 책 놀이터
- 15:00~15:40 / 1층 놀이꽃밭 / 인형극 <수상한 과자가게>
- 15:00~15:40 / 2층 지혜마루 / 힐링공연 <Per Nuit과 함께하는 연말정산>
- 10:00~16:00 / 진주체험분원 / 12월 토요가족체험
- 14:00 / 해담 3층 해담홀 / 체험 <토요책동산(종이접기 트리 만들기)>

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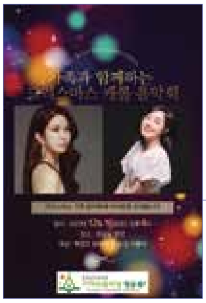
- 10:00~13:00 / 만장대실 / 크리스마스 풍선 소품 만들기
- 11:00~12:00 / 2층 지혜마루 / 지혜동극 옹고집

9

- 16:00~17:00 / 정글북 별당 / 인형극 <늑대아저씨의 크리스마스>
- 11:30, 12:30 / 1층 유아자료실 / 책 읽어주세요
- 14:00~15:00 / 3층 시청각실 / 곰돌이의 크리스마스 선물
- 11:00~12:00 / 2층 지혜마루 / 빛이나는 저글링
- 14:00~15:00 / 2층 지혜마루 / 지혜정음 퓨전국악쇼
- 10:00~12:00 / 1층 로비 / 나만의 크리스마스 모형 책 만들기
- 14:00~15:30 / 3층 더배움4 / 크리스마스 머핀 만들기
- 15:00~15:40 / 1층 세상을 봄 / 뉴에이지 연주회
- 15:00~15:40 / 2층 지혜마루 / 힐링공연 <매직앙상블 (빈센트 반 고흐)>
- 09:30~12:00, 14:00~16:30 / 김해체험분원 / 가족 나들이 토요 체험
- 11:00 / 책담 1층 누리홀 / 공연 <누리봇 댄스 공연>
- 11:00 / 꿈담 1층 꿈담홀 / The Last 샌드아트

13

- 15:00~17:00 / 3층 시청각실 / 5060 추억극장 <중경삼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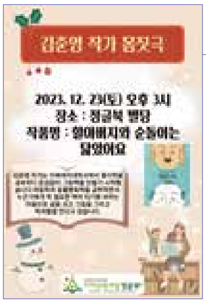
- 11:00~12:00 / 2층 지혜마루 / 지혜동극 이상한 샘물
- 10:00~12:00 / 1층 힐링방 / 원데이클래스 <2023년 올해의 앨범 만들기>

16

- 16:00~17:00 / 정글북 별당 /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회
- 10:00~13:30, 13:30~16:30 / 만장대실 / 하반기 우리가족 소품 만들기
- 11:00~12:00 / 1층 별빛마루 / 별빛인형극 <어린왕자>
- 11:00~12:00 / 2층 지혜마루 / 창시뮤X어린이 뮤지컬
- 14:00~15:00 / 2층 지혜마루 / 플라워 LED 매직쇼
- 14:00~15:00 / 1층 놀이꽃밭 / 사서선생님 책 읽어주세요
- 11:00~11:40 / 2층 지혜마루 / 동화콘서트 <과학 마술쇼 (더 사이언스)>
- 15:00 / 책담 1층 꿈뜨락 / 공연 <디즈니 인 크리스마스>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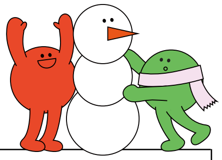
- 11:00~12:00 / 2층 지혜마루 / 수요음악회 클래식 클리어



22

23

- 15:00~16:30 / 정글북 별당 / 정글in 그림책작가 <김준영> 몸짓극
- 14:00~15:00 / 2층 지혜마루 / 지혜콘서트 <2024 SEA YOU>
- 13:00~14:00 / 1층 놀이꽃밭 / 도서관 책 놀이터
- 15:00~15:40 / 2층 지혜마루 / 재능기부공연 <내가 정말 대단해>
- 11:00 / 책담 1층 꿈뜨락 / 공연 <동화인형극(빨간코 루돌프와 산타할아버지)>
- 11:00 / 책담 1층 누리홀 / 공연 <누리봇 댄스 공연>
- 14:00 / 책담 2층 책벗 / 체험 <해피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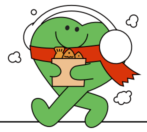
27

- 15:00~17:00 / 3층 시청각실 / 5060 추억극장 <시카고>
- 15:00 / 꿈담 1층 꿈담홀 / 영화 상영 <씨네 라이브러리 (리틀 포레스트)>

28

2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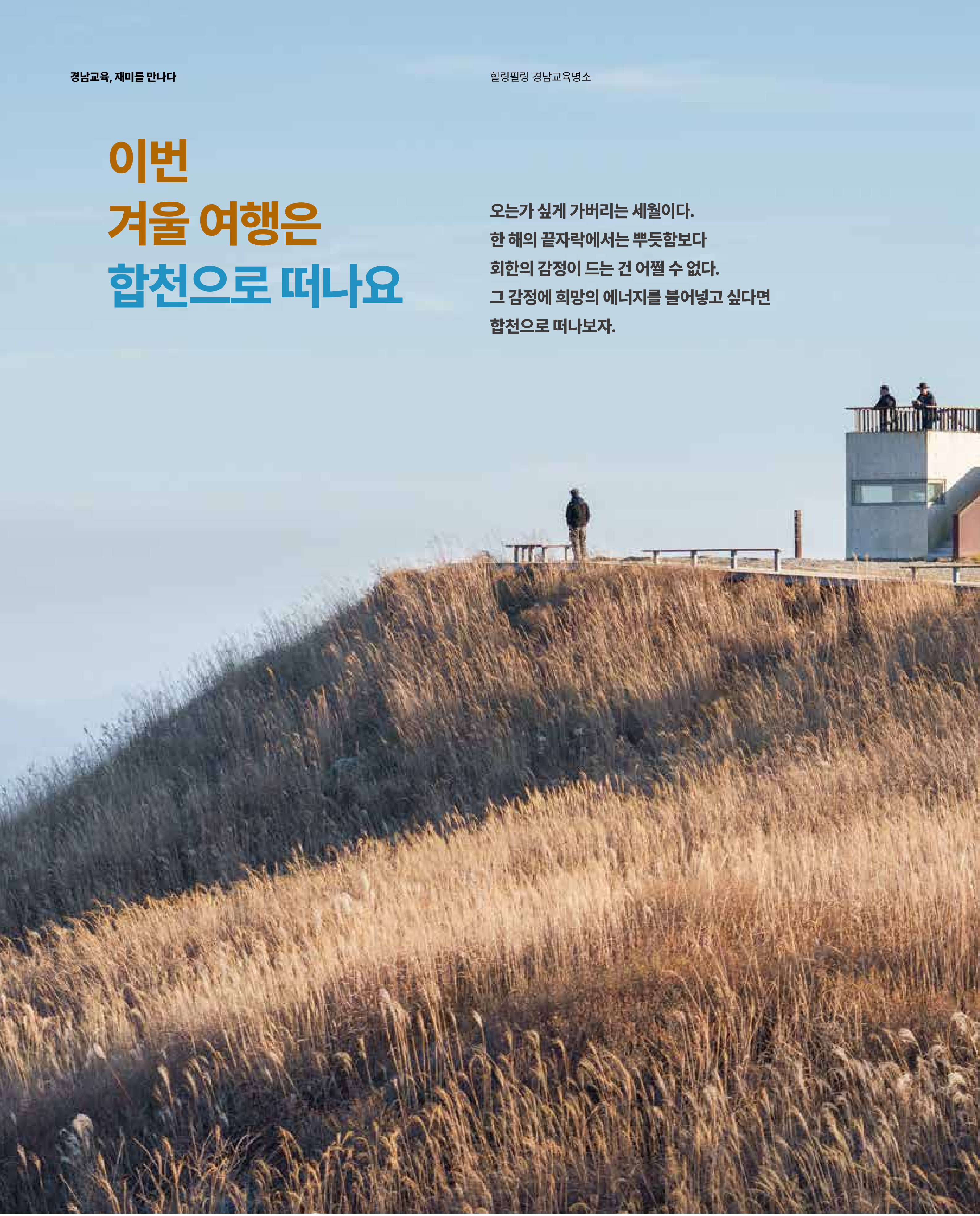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면의 한계로 일부 행사만 소개하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각 기관의 누리집이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번
겨울 여행은
합천으로 떠나요

오는가 싶게 가버리는 세월이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는 뿌듯함보다
회한의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그 감정에 희망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싶다면
합천으로 떠나보자.



글 최규정 **사진** 백동민

01 황매산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초소전망대
02 겨울 들판의 마른 억새군락지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겨울 들녘의 주인은 누가 뭐라 해도 억새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면 맹렬히 불타오르던 단풍은 끝내 낙엽이 되고 말지만, 억새는 이내 황갈색으로 변하며 겨울을 오롯이 받아들인다. 생기를 다 소진한 마른 억새를 바라보면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낸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영남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산, 황매산은 억새가 유명하다.

황매산은 합천군 가회면·대병면과 산청군 차황면의 경계에 있다. 황매산의 황(黃)은 부(富)를, 매(梅)는 귀(貴)를 의미하는데 전체적으로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고도 1,108m의 높은 산이지만 중턱에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황매산군립공원 주차장에 주차 후 걸어 올라가면 어렵지 않게 억새 군락지를 만날 수 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축제는 끝났지만 마른 억새들은 여전히 겨울 들판을 지키고 있다. 바짝 마른 억새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이리저리 물결을 만들어 낸다. 수십만 평의 능선을 따라 산 가득 수놓는 억새는 이 겨울, 색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거센 바람이 이끄는 대로 파도를 만들어 내며 넘실대는 빛바랜 은빛 물결은 스산하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01

02

03

03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의 도서관 복도. 정글처럼 꾸며져 있다.
04 하늘에서 내려다본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의 전경
05 북 캠핑장의 방갈로
06 미숭산교직원휴양원

흔한 들풀이지만 추위를 견디고 거센 바람을 견디는 그 강단에 괜스레 감정이입을 해본다. 억새도 억새지만 이 겨울 황매산을 찾은 이유는 지는 해를 바라보기에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뉘엿뉘엿 넘어가는 황금빛 일몰에 물들어가는 억새 군락은 가을의 그것과는 또 다른 감탄을 자아낸다.

이와 함께 황매산은 은하수 명소로도 유명하다. 합천군은 철쭉과 억새 사이 건물 나눔 덱 주변으로 유도등을 지난해 설치했다. 유도등은 황매산 은하수 별빛 산행을 즐기는 방문객들을 위해 밝게 비춰 방문객을 안전하게 유도한다. 유도등은 일몰 시간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합천군은 황매산군립공원 정상 주차장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매표소의 직원이 부재 시, 정상 주차장과 매표소 앞에 있는 무인정산기에서 정산을 하고 출차하면 된다. 소형차 4시간 기준 3,0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추가 1시간당 1,000원이 가산된다.

자동차 도로가 이어져있어 편리하지만 황매산의 절경인 모산재를 거쳐 정상까지 걸어 올라가는 것을 추천한다. 여느 산 정상의 모습과는 달리 사방으로 시야가 탁 트여 있어 가쁜 숨을 내쉬면 뻥 뚫린 허공으로 근심도 함께 날아가는 기분이다.

04

05

06

그래도 헛헛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 속을 책으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

황매산군립공원 주차장에서 한 시간여 달려 도착한 가야산 자락, 옛 숭산초등학교에서 재탄생한 힐링 독서체험공간인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산독서당 정글북(情·글·book). 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독서와 놀이가 어우러지는 곳, 이 모든 것을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은 독서와 공연, 놀이, 캠프가 공존하는 신개념 독서 공간이다.

도서관과 북캠핑장으로 나뉘는데 도서관에는 편안하게 독서할 수 있는 책오름, 정글북 숲을 콘셉트로 한 모글리의 숲, 독서와 컬러링 테라피를 위한 컬러방, 만화를 비치한 웹툰방 등이 갖춰져 있다. 북캠핑장은 10동의 방갈로와 6개의 캠핑 덱을 갖춰놓고 종일 책과 친구 하며 지내기 부족함 없이 꾸며져 있다. 도서관 건물 뒤편으로 대규모 네트 어드벤처가 있어서 아이들이 몸으로 놀기도 좋다.

교직원이라면 인근 미숭산교직원휴양원에서 하룻밤을 묵어도 좋겠다.

경남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주중에 신청 가능하다. 옛 합천종합야영수련원을 활용한 미숭산교직원휴양원은 지난 11월 문을 열었다. 방갈로 15동과 카라반 사이트 5개소, 캠핑 사이트 5개소, 기존 수련원을 리모델링한 관리실 및 샤워실 등을 갖췄다. 미숭산교직원휴양원은 설립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논의됐던 경남교직원 힐링센터 설립 추진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 동부·서부권 모두 이동 시간이 1시간 30분대로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기존 캠핑장과 차별을 둔 교직원 및 가족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양원인데 새소리와 물소리, 달빛, 별빛과 더불어 쉼과 힐링의 공간을 갖췄다.

강인한 생명력의 억새, 속을 꽉 채울 수 있는 독서, 그리고 자연에 파묻혀 느끼는 쉼과 여유가 있는 합천. 합천에서 한 해를 마무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

황매산군립공원
- 주소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공원길 331
- 문의 055-930-4769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 주소 합천군 가야면 매안대전길 18-6
- 문의 055-933-1611
- 도서관 운영 오전 9시~오후 6시
- 누리집 https://junglebook.gne.go.kr (북캠핑장 - 방갈로와 캠핑덱 예약 및 이용 안내는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경상남도교육청 미숭산교직원휴양원
- 주소 합천군 야로면 미숭산로 341
- 문의 055-932-6705

우리가 만든 장면들, 박억부·최복심 부부

박억부 할아버지(86세)
최복심 할머니(83세)

남해 바다가 푸르게 내려다 보이는 삼동면 물건리 대지포마을의 언덕. 이곳은 박억부·최복심 부부에게 특별한 곳이다. 일찍부터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길 약속한 고향 마을이자, 이제는 머나먼 너머의 시간을 준비하며 노후를 보내는 휴식처이기 때문이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다. 젊은 날부터 사진과 영상 촬영을 즐겨하던 박억부 어르신이 그동안 찍은 사진, 영상을 오롯이 보관해 둔 장소이기 때문이다. 60년을 해로하며 부부, 그리고 그의 가족이 만들어 온 장면을 만나기 위해 남해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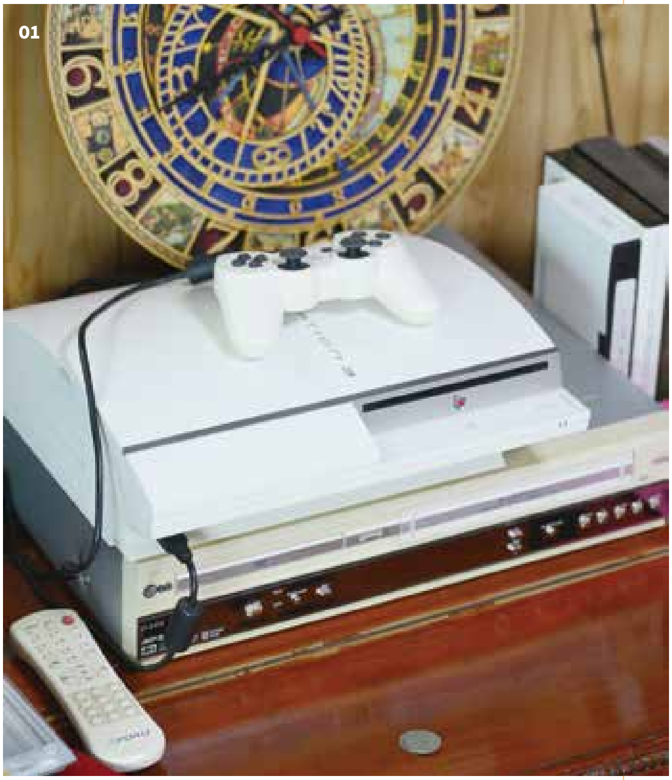
www.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글 임승주 **사진** 홍순천

사진·영상으로 성실하게 기록한 60년

박억부 어르신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가자 창 너머 푸른 바다와 함께,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캠핑 의자가 눈에 띄었다. 오랜 시간 앉아있기 좋게 푹신한 털 담요가 깔린 캠핑 의자는 두 사람의 전용 관람석이기도 했다. 박억부 어르신이 직접 찍고 편집한 가족 영상을 보는, 추억행 전용 관람석.

“그냥 사진 찍는 게 좋더라고요. 서른 넘어서인가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카메라를 하나 샀어요. 독일제 ‘라이카’라고, 필름을 감아서 찍는 걸 샀는데 그걸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도 먹고살기 바쁘니까 사진만 찍으러 돌아다니긴 어려웠고, 가족들 모일 일이 있을 때는 빼놓지 않고 찍었지요.”



01 박억부 할아버지의 폭넓은 관심사를 보여주는 게임기와 오디오
02 요즘 즐겨 사용하는 비디오카메라를 설명하는 할아버지
03 오래된 비디오카메라와 기록용 도구들

이후 ‘소니’사에서 나온 8mm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며 영상 촬영에도 재미를 붙였다. 당시만 해도 8mm 필름을 현상해 주는 곳이 없어 일본까지 보내기도 하고, 직접 찍은 사진을 슬라이드에 넣어 감상하기도 하는 등 취미의 반경을 넓혀갔다. 여전히 기록 대상은 가족이었다.

“나도 모르게 생을 기록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글재주가 좋으면 글을 남겼겠지만 그렇게는 못했고 사진이 좋겠다 싶었지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찍어둔 게 쌓이기만 하고 ‘그냥 찍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단골 카메라 가게에서 ‘피나클’이라는 편집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줘서 CD로 사와서 편집도 시작했지요.”

이후 카메라는 8mm에서 6mm로, 필름에서 디지털로 급속하게 변해왔지만 그의 촬영 열정은 변하지 않았다. 손자 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내의 칠순 잔치까지, 가족 여행이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촬영 전담 기사

로 변신했고 그렇게 가족의 기록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쌓였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쌓여있던 종이 사진을 모두 스캔해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아 이전보다 쉽게 원하는 사진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영상을 보니 자막에 배경음악까지, 무엇 하나 허투루 한 것이 없다. 직접 영상에 자막을 넣고, 영상을 보기 위해 TV 모니터를 연결하고, 'USB' 'SD카드' 등을 낯설지 않게 말하는 여든여섯의 어르신을 보며, '머물러 있지 않는 삶'이 주는 작은 감동이 느껴졌다.

두 손 맞잡고 애틋하게 살아온 60년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집안끼리도 알고 지내던 동네 '오빠 동생 사이'였다. 당시로선 흔치 않던 연애결혼이었는데, "제대 후 청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04 최복심 할머니의 칠순잔치 영상을 관람 중인 두 사람
05 사진 촬영 외에 엽서, 우표 수집도 즐겼다
06 가족의 모습이 담긴 6mm 테이프
07 고향인 대지포마을 언덕에 함께 선 부부

그게 1963년 1월 4일의 일이니, 벌써 60년이 넘었다. 이때도 사진과 관련된 기억은 빠지지 않는다. 당시에는 남해와 삼천포를 잇는 다리가 없어 여객선을 타고 삼천포까지 나가 약혼 사진을 찍었다. 한복과 양복을 멋스럽게 차려입은 두 사람의 모습은 60년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말갛게 빛났다.

결혼 후에는 부산으로 가 군복을 염색약으로 물들여 작업복으로 만드는 일을 했고, 첫째 딸을 낳은 후에는 고향과 가까운 삼천포로 이사해 멸치 가공부터 얼음 공장까지 모두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일을 했다. 가진 것 별로 없이 시작했지만, 타고난 세심함과 성실함으로 부부는 세월과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부부가 성실하게 산 흔적은 지금도 창고에 표창장이며 상패로 또렷하게 남아있다.

07

“손주며 자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인백기천(人百己千)’. ‘다른 사람이 백 번 노력하면 나는 천 번을 노력한다’는 뜻인데, 고운 최치원 선생이 중국 유학 시절부터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이에요. 얼마 전 추석 때도 손자에게 ‘준영아, 할아버지가 늘 뭐라고 말하지?’ 하니까 자동으로 ‘인백기천이요’라고 대답할 정도로 내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늘 가족과 함께한 기억과 추억을 들여다보며 산 덕분일까. 부부는 60년을 살면서 지금까지 큰 다툼 한 번 없었을 정도로 화목한 삶을 꾸려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대가 모두 모여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떠났는데, 손자 손녀가 성인이 된 지금은 저마다 일정이 바빠 다 함께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부부의 유일한 아쉬움이다.

가장 큰 기쁨 역시 아이들에게서 온다. 부부의 요즘 가장 큰 즐거움은 증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일인데, 슬하의 삼남매 중 큰딸이 아들 셋을 낳았고, 그 아들 셋 중 막내가 올해 3월 아빠가 된 것이다. 하루에 꼭 한 번, 손자가 보내오는 사진이며 영상을 보는 일이 요즘 부부에게 가장 큰 낙이다.

박억부·최복심 부부가 60여 년을 함께하며 만든 장면 몇몇을 함께 돌아보고 있자니, 부부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또렷이 느껴졌다. ‘가장 젊은 날, 오늘’을 보다 잘 기록하기 위해 쉬지 않고 배우려 했던 자세, 그리고 젊었던 날의 모습을 애정 어린 눈으로 자주 들여다보는 일. 그것이 부부가 오래오래 행복에 머무는 비결 같았다.

우리말 돋보기

연말

2023년 마지막 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연말'과 관련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 계획한 일을 잘 마무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글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국어전문가 김민지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남우주연상 부분(?) 수상자는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에서 시상식을 열고 한 해 동안 큰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시상식 행사에서 사회자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수상자를 부를 때 '주연상 부분', '조연상 부분'이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이는 '부문'을 '부분'으로 잘못 말한 것입니다.

부문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거나 나누어 놓은 낱낱의 범위나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 과학 부문, 중공업 부문처럼 말이죠. 부분은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 또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의 하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사과 한 개를 세 부분으로 잘랐다.'처럼 말입니다.

따뜻한 연말 되세요(?)

날이 추워지면 훈훈한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부, 봉사 활동, 간식 나눔… 또 지인끼리 훈훈한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이때, "따뜻한 연말 되세요.", "행복한 연말 되세요.", "즐거운 연말 되세요."라고 말을 건네는 분들이 있죠. 이는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입니다.

'되다'는 (사람이)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처럼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따뜻한 연말 되세요."라는 문장은 어법상 잘못된 표현입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라고 써야 올바릅니다.

영화 〈크리스마스 캐롤〉 포스터

크리스마스 캐롤(?)

성탄절 전후로 울려 퍼지는 캐럴(carol)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14세기 영국에서 종교 가곡의 한 형식으로 생겨나 발전하였으며, 나중에는 성탄절을 축하하는 노래만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캐럴이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다 보니 한글로 표기할 때 카럴, 캐롤, 카롤 등 혼선이 일고 있는데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캐럴[kærəl]이라고 써야 합니다.

혼동하고 있는 외래어 표기법

- 싼타클로스(X) → 산타클로스(O)
- 크리스마스츄리(X) → 크리스마스트리(O)
- 진글벨(X) → 징글벨(O)
- 초코렛(X) → 초콜릿(O)
- 핫케익(X) 핫케잌(X) → 핫케이크(O)
- 카렌다(X) 카렌더(X) → 캘린더(O)

12월 호 우리말 퀴즈!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올바르게 쓰인 것을 고르시오.

① 이번 년말에는 선생님께 연하장을 보냈다.
② 월 말에는 은행이 몹시 붐빈다.
③ 연말이 다가오면서 책상 달력에 망년회 모임을 표시했다.
④ 강술을 부르는 씁쓸한 연말
⑤ 날도 추운데 까페에서 따뜻한 차나 마시자.

정답 : ④ (① 년말 → 연말, ② 월 말 → 월말, ③ 망년회 → 송년회, ⑤ 까페 → 카페)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의 특징

수능위주전형은 모집시기상 정시에 해당하는데요. 가군·나군·다군 등의 모집 군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수시의 6회 지원과는 다르게 수험생은 모집 군별로 각각 1회씩, 최대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대학이 수능 성적만을 전형 요소로 사용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를 수능 성적과 함께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학생부의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수능 성적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의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가 학생부 교과 평가를 반영하였으며, 2024학년도에는 고려대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학에 따라 반영 영역 수, 영역별 반영 비율, 반영 지표, 영역별 가감점 등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이 상이하여 대학별 환산점수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대학별 환산 점수 산출을 통해 결과에 유리한 대학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 좋겠죠. 대학의 해당 모집단위에 따라 전형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교대, 사범대, 의학계열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는 면접을 실시하고 군사학과 등에서는 신체검사나 체력 테스트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모집인원의 경우 서울권이 가장 인원이 많으며 가군과 나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서울과 비수도권의 정시모집인원의 총원은 비슷한 정도입니다.

2024학년도 정시모집 대입전형 일정요약

11/30(화)	2024/1/3(수)~6(토)	1/9(수)~2/1(목)	2/6(화)	2/7(수)~13(화)	2/20(화)	2/21(수)
정시학생부기준일	정시모집 원서접수	군별 전형기간 (가,나,다 군)	정시합격자 발표마감	정시 등록기간	미등록 충원합격 통보마감(18:00)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마감

경남지역대학 정시모집 일정

정시모집 접수마감

2024년 1월 5일(금) : 진주교대(17시)
2024년 1월 6일(토) : 가야대·경남대·영산대·인제대·창신대·창원대 (18시), 경상국립대 (19시), 부산장신대(21시)

군별 모집대학 현황

가군 : 경상국립대·경남대·부산장신대·인제대·창신대·창원대
나군 : 경상국립대·경남대·진주교대
다군 : 가야대·경상국립대·경남대·영산대·인제대·창원대

수능 반영 방법

가. 영역별 활용 지표

국어	수학	탐구	대학명
백	백	백	가야대, 경남대, 진주교대, 창신대, 창원대
표	표	표	경상국립대, 영산대, 인제대

※ **표:** 표준점수, **변표:** 변환표준점수, **백:** 백분위, **등:** 등급

나. 영역별 반영 비율

대학명	모집군	모집계열(단위)	영역별 반영 비율(%)								
			반영 영역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제2외·한문
					확통	미·기		사/과/직	과목수		
경상 국립대	전체	인문	4	30	25		20	25	2	-	
		자연	4	25	30		20	25	2	-	
	가	의예, 수의예, 약학	4	25	30		20	25(과)	2	-	
	가나	음악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 민속예술 휴먼헬스케어,디자인비즈니스,	3	40	-		30	30	2	-	
경남대	가	군사학	3	(33.3)	(33.3)		(33.3)	(33.3) (탐)	1	-	
	나다	전 계열	3	(33.3)	(33.3)		(33.3)	(33.3)	2	-	
인제대	가	의예, 약학	4	25		25	25	25(과)	2	-	
	가다	해당 계열	4	25	25		25	25	2	-	
		스포츠헬스, 웹툰영상	3	(33.3)	(33.3)		(33.3)	(33.3)	2	-	
진주교대	나	인문(초등교육)	4	25	25		25	25(탐)	2	-	
창원대	가다	인문	4	30	25		20	25	1	-	
		자연	4	25	30		20	25	1	-	
	다	예체능	3	35	-		30	35	1	-	

※ 사, 과, 탐, 사/직, 과/직, 탐/직으로 표기(탐은 사/과를 의미함)

경남교육 NEWS

경상남도교육청, 아이좋아 전자도서관 서비스 시작

아이톡톡 계정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 전자책·오디오 북 10만여 권 제공

경상남도교육청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아이톡톡과 연계한 개인 맞춤형 독서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이좋아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했다. 아이좋아 전자도서관 서비스는 도내 아이톡톡 계정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로 전자책, 오디오 북(audio book)을 예약이나 대기 없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아이좋아 전자도서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자 도서, 오디오 북 10만여 권을 제공한다. 교육과정 교과 연계 도서, 아동용 도서,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도서, 이달의 주목 도서 등 책 추천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서 정보를 안내하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한학기 한책읽기', '온책읽기', '독서토론수업' 등 독서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연계 수업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경남교육청 아이톡톡 누리집에서 '아이좋아 전자도서관'을 접속하거나 '부커스' 앱을 설치하여 아이톡톡 계정으로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경남교육청-창원특례시 '진해중부고 설립' 업무 협약 체결

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 기대

경상남도교육청은 창원특례시와 '(가칭)진해중부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창원특례시 진해구는 비평준화 지역이자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학급 지역이다. 특히 진해 중부 지역은 학령인구가 진해구의 45%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등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한편 학교를 신설하려면 설립을 위한 필수 요건인 학교 용지가 있어야 한다. 진해 중부 지역의 경우는 마땅한 학교 용지가 없었고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진해구는 창원특례시 전체 학생 배치를 검토하여 신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실상 중앙투자심사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진해 중부 지역 보호자·지역민 등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설립 요구에 힘입어 자은동 일원에 터를 마련했다. 나아가 이번 창원특례시와의 업무 협약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해중부고는 25개 학급(특수 1개 학급 포함), 672명 규모로 자은동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경남과학교육원, 아이북 활용 메타버스 투어 '호평'

도내 초·중 11개교 855명 대상 10~12월 총 9회 실시

경남교육청 과학교육원은 미래교육 역량 신장을 위해 도내 초· 중학교 11개교 34학급 855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투어를 실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과학교육원은 지난 10월부터 본원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시관 및 체험관 투어 프로그램을 시작해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교육원 메타버스는 ZEP 플랫폼을 기반으로 화석문화재 전시관, 과학체험관, 천체관측실, 독도체험관 등을 구축해 현실과 가상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실감나게 과학교육원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 구축한 화석문화재 전시관은 천연기념물 제395호인 화석의 과학적 의미를 전문가 해설을 통해 배울 수 있으며, 독도체험관은 '독도의 날(10월 25일)' 계기교육으로 활용도가 높아 학교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남과학교육원은 또 도내 전 학교에 보급된 스마트단말기 '아이북'을 활용, 메타버스 투어를 운영함으로써 아이북의 미래형 수업을 위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리벌초,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천원당근마켓 운영

자원 선순환 천원당근마켓, 수익금 기부로 온정 나눠

미리벌초등학교는 11월 3일(금) 미리벌 알참미 가을 축제 한마당에서 전교두레회(학생자치회) 주최로 운영한 천원당근마켓에서 발생한 수익금 106만 1,000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삼문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인 천원당근마켓을 통해 전교두레회가 중심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고민과 마음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천원당근마켓 포스터 및 영상 제작, 기부 물품 수집 및 판매 등 모든 절차를 전교두레회에서 주관하여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였다.

특히 전교 임원들은 행사 한 달 전부터 5~6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천원당근마켓 홍보팀과 운영팀을 조직하여 행사를 준비하였다. 한편 운영팀에서는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기부받은 물품들을 분류 및 정리하였고, 축제 당일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도 질서 있고 안전하게 천원당근마켓을 운영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전교두레회 윤시현 회장은 "올해로 2회째인 천원당근마켓을 내년에도 진행하여 미리벌초등학교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가겠다"고 다짐하였다.

도의원에게 듣는다

진상락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국민의힘·창원11)

안녕하세요. 현재 의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경남교육정책은 무엇인가요?

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지역구 진상락 도의원(창원11)입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현재 다양한 이슈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어느 하나 경중을 따질 수 없지만 올해만큼은 특히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을 만드는 것과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의 방향성을 조율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더 나은 경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토론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선생님들은 자신의 교육을 유감없이 펼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을 꼽는다면 어떤 것인가요?

경남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자연재해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 추진 등 정말 많은 의정활동이 있었지

글 김달님 **사진** 백동민

만,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의정활동은 8년간 멈춰있던 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 위를 가로지르는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저만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6개월간 수없이 진행했던 관계기관 간담회와 보호자 간담회, 현장 점검,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구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면서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었을 때 도의원으로서 정말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 제 지역구에 있는 전안초등학교와 광려중학교, 삼계중학교의 통학로 개선 사업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해결하고 싶은 지역 현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도의원에 출마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한 지역 현안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학교 위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삼계지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송전선로 문제는 앞으로 추진될 공사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살필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삼계지구 주차 문제는 주차빌딩을 조성하여 해결하는 동시에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차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학원가가 많고 통학로로 이용되는 삼계지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서읍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확신하기에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도의회에서는 경남도가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의원의 역할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남교육가족에게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경남교육가족 여러분의 2023년이 값지고 행복한 기억만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에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경남으로 거듭나고 행복교육지구 정책의 대대적인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경남교육으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www.gne.go.kr KOR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의회 소식

경상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개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도정질문 등

경상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가 11월 7일(화)부터 12월 14일(목)까지 개최하였다. 제40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20건의 안건 처리가 있었고, 윤준영 의원 등 9명의 의원의 도정질문이 있었다.

제409회 정례회 제1~6차 교육위원회 개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 제1~6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과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 등 10개 교육지원청, 미래교육원 등 직속기관 2개소를 포함한 13개 교육청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감사사항으로 ▲예산편성·집행 적정성 여부 ▲불용 과다 예상 사업 현황 ▲2년간 주요 업무 추진사항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년간 신규사업 추진 현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다.

땅의 기운이 주는 선물

“맨발 걷기로 자연 면역력 길러요”

맨발로 흙을 밟아 지구와 접지하는 어싱(earthing), 맨발 걷기가 단순한 바람을 넘어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모래밭, 황톳길, 흙길 등을 걸으며 건강한 맨발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 걷기 마니아들을 만나,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 들어봤다.

맨발로 맨땅을 걷는 것이 맨발 걷기의 핵심

지난 11월 초, 진해 드림로드 황톳길을 걷기 위해 모인 경남어싱맨발걷기협회 24명의 회원들은 체험 행사 전,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신발을 벗고 무릎 위로 바지를 걷어 올렸다.

“제 발 좀 보세요~!” 자신 있게 맨발을 내놓는 한 회원의 한 마디에 너도나도 황톳길 위로 발을 내디뎌 보인다. 맨발 걷기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발을 감싸고 있는 피부색부터 달랐다. 황토가 묻은 발바닥은 더욱 단단해 보였고, 황톳길을 한두 바퀴 돌고 온 회원들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다. 회원들은 청룡사 약수터를 시작점으로 3개 조를 나눠 코스별로 걷기 시작했다. 폭신한 황톳길 위로 천천히 속도를 맞추고 정성스레 한 발씩 내디뎠다. 발이 닿는 땅의 기운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혼신을 다해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경남어싱맨발걷기협회 박형균 회장은 “발바닥에는 온몸과 연결된 7800여 개의 경혈이 있습니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서 자극을 주면 혈액순환과 자연치유 효과가 있어 심신이 모두 건강해지죠. 순수한 자연의 힘을 갖춘 면역력, 자가 면역 강화에는 맨발 걷기만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글 백지혜 **사진** 김정민

발뒤꿈치-발바닥-발가락 순으로 땅 밟아야

창원시 진해구에 본부를 두고 시·군·구별로 지부를 운영하는 경남어싱맨발걷기협회 회원들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마다 모여 맨발로 걷는다. 특이한 것은 회원들 중 유난히 환우들이 많다는 점이다. 췌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불면증, 우울증, 관절염 등 질병을 앓았던 회원들이 맨발 걷기를 통해 한둘 씩 완치 중이라고 했다. 실제로 맨발 걷기는 체내 정상세포를 파괴해 암, 동맥경화, 당뇨 등 각종 질환의 원이 되는 독소 물질, 즉, 활성산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걷기 자세'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호흡을 권장하고, 바닷가 모래밭이나 황톳길로 조성된 안전한 장소를 추천한다.

맨발 걷기의 최적기는 겨울철

날씨가 추워졌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겨울철 맨발 걷기는 여름보다 효과가 10배나 높다. 36.5도의 체온과 바깥 영하 온도와의 큰 차이 때문에 발바닥의 혈액순환이 오히려 더 좋아

맨발 걷기 일곱 가지 방법

❶ 몸에 힘을 빼고 발바닥의 모든 부위가 닿도록 천천히 걷기
❷ 발바닥을 활 모양으로 만들고 뒤꿈치부터 발가락 끝까지 순차적으로 접지하기
❸ 발가락을 위로 뻗어 올리고 발바닥만으로 걷기
❹ 발뒤꿈치 들고 까치발로 걷기
❺ 주걱처럼 발가락 전체를 오므리고 발뒤꿈치와 발가락이 동시에 땅에 닿도록 걷기
❻ 발바닥과 발가락을 펴고 스탬프를 찍듯이 걷기
❼ 발가락, 발부리, 발샅, 발허리, 발뒤꿈치 순서로 뒤로 걷기

지기 때문이다. 아침, 저녁보다는 햇빛이 많은 낮에 걷는 것이 좋고, 따뜻한 복장으로 발바닥을 제외한 나머지는 열 손실이 없도록 빈틈없이 보온에 신경을 쓴다. 20~30분 워밍업으로 충분히 몸을 데운 뒤, 걷기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차가운 물로 발을 씻어야 한다.

MINI INTERVIEW

"맨발 걷기로 기적을 경험했어요"

구현숙 회원

지난해 유방암 수술을 하고 의사로부터 방사선치료와 투약 지시를 받았지만, 식이요법과 맨발 걷기로 치유해 보겠다는 각오로 하루 만 보 이상을 꾸준히 실천했어요. 1년 뒤 최종 검진에서 암유전자가 깨끗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으면 맨발 걷기에 꼭 도전해 보세요!

"우울증과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원진연 회원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맨발 걷기를 하니까 서로 격려도 하고 힘을 보태어 줘서 그런지 우울증과 불면증이 싹 사라졌어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덕분에 생활에 활기가 생겼죠. 호기심으로 시작해도 좋아요. 점점 당신이 좋아지고 있다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좋아〉 11월 호 예고편 영상 댓글 이벤트

2023년, 당신을 가장
웃게 만든 일은 무엇인가요?

2024년,
당신의 새해 소원도
들려주세요

본 이벤트는 <아이좋아> 소식지 11월 호 예고편 영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댓글 이벤트입니다. 매달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12월 호 이벤트는 11월 말 경남교육청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에 공개되는 예고편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정훈 님

아이가 학교에서 생각지도 않게 상을 타왔더라고요. 짜잔~하면서 보여주더니 상을 어떻게 탔는지 재잘재잘 30분을 말하더라고요. 기분도 좋으면서 아이랑 30분 동안 나눈 수다가 너무 좋았습니다. 2024년에는 가족 여행을 꼭 가게 해달라고 빌고 싶어요. 직장이 휴가가 없다 보니, 가족 여행을 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행복한 3박 4일을 보낼 수 있게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박장호 님

2023년 가장 기쁘게 웃었던 일은 우리 집 반려견이 새끼를 낳은 일입니다. 제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견이 아주 예쁘고 천사 같은 강아지를 낳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려견의 또 다른 분신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반갑고 행복해서 웃었던 게 생각나네요. 지금은 무럭무럭 자라서 엄청 컸지만요.
2024년도에도 제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모두 아프지 않고 꽃길을 걸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권하나 님

저를 가장 웃게 만든 건 취업이에요! 2년 동안 자취하면서 혼자 아르바이트하고 지내는 틈틈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번번이 불합격했고 2년 만에 드디어 괜찮은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어요. 첫 월급 타서 부모님께 맛있는 소고기 사드렸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2024년에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해서 더 높이 올라가서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11월 호
예고편 영상

김진만 님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초3인데요. 지난 제 생일에 아들이 손 편지를 주었어요. 편지를 읽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행복해서 좋고 아빠가 내 아빠여서 너무 좋다는 글귀는 지금도 앞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듯합니다.

그리고 제 소원을 말씀드리자면요. 제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저희 부부와 초3 아들 이렇게 3명인데요. 아들이 누구보다 축구를 좋아해요. 매일같이 축구를 하자고 해서 쉬는 날이면 같이 축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위해 주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며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되지 않아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대장암 2기였어요. 다행히 다른 장기로 전이는 되지 않았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고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결혼을 해서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야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왔는데 제 건강으로 인해 다시 어려워질 것 같아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암 수술부터 했고 걱정한 것과 달리 수술이 잘되었다는 담당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몸은 쇠약해졌고 지금 상태에서는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어렵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까지 없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해서 더더욱 미안한 마음만 드네요.

지금으로서 가장 큰 소원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무엇보다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와 함께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 해보고 싶은 소원이 되었지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회복에 매진하겠습니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함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우리의 희망, 경남교육청 응원합니다.

정미루 님

2주 전 둘째를 출산했어요.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감동을 잊지 못해요! 몇 번의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가진 아이다 보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동이 안 느껴지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홉 달 조금 넘어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12시간 진통 끝에 낳은 아이의 첫 울음소리에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그런 감동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좋은 남편과 의사선생님 덕분에 건강하고 예쁜 공주님을 만나고 저도 잘 회복했어요. 이후 육아 월드로 입성에서 눈물 콧물 뺀 날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게 너무 소중한 아이예요. 2024년 새해 소원은 취업이에요.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다시 원하는 기업에 취직해서 저도 명찰을 패용하고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커피 한 잔 마시며 하하 호호 떠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방 안에서 외롭고 우울한 날들은 이제 2023년에 놓아두고, 저도 사회에서 활약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예요!

신송이 님

85키로였던 지난날의 흑역사를 이겨내고 55키로까지 감량에 대성공한 직후, 러브콜도 많이 받고 환골탈태한 내 모습을 보면 이제야 사람 같다는 걸 몸속 깊이 느끼고 있다. 33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바로 지금이다 ! 고로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맞는 말같다. 내가 이렇게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날 사랑해주고, 이제 결혼도 자신 있다. 결혼까지 골인하자. 다 덤벼라. 세상아 맞서주마. 2024년도에도 퀸카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며 많은 남자들을 울리자! (농담)

2023 「아이좋아 경남교육」 만족도 조사

올 한 해도 <아이좋아 경남교육>에 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독자와 함께하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 더 유익한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

1. 귀하의 연령대를 알려주세요.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이상

2.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구독하는 /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경남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알고 싶어서
- ☐ 다양한 학생, 교사,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 ☐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싶어서
- ☐ 재미 또는 읽을거리가 필요해서
- ☐ 기타 ( )

3. <아이좋아 경남교육> 소식지를 접하게 된 경로는 무엇인가요?

- ☐ 경남교육청 누리집 또는 SNS
- ☐ 지인의 추천
- ☐ 학교, 공공기관, 은행 등
- ☐ 기타 ( )

4. <아이좋아 경남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5. <아이좋아 경남교육>에서 가장 흥미롭거나 도움이 되는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3개 선택)

- ☐ 특집기획 경남교육
- ☐ 힐링필링 경남교육명소
- ☐ 요즘아이, 별별 꿈
- ☐ 진로진학 나침판
- ☐ 경남교육공동체를 만나다
- ☐ 즐겁지 아니한가
- ☐ 학교 변신은 무죄
- ☐ 숫자로 보는 경남교육
- ☐ 열정을 만나는 시간
- ☐ 기타 ( )

6. 위의 질문에서 해당 콘텐츠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7. 2024년 <아이좋아 경남교육> 소식지에서 보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 ☐ 학생들의 수업 및 학교생활
- ☐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관한 정보
- ☐ 다양한 학교 현장 소식
- ☐ 경남교육 정책 및 정보
- ☐ 기타 ( )

8. 마지막으로 <아이좋아 경남교육>의 좋은 점, 불편한 점, 개선사항 등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하기

참여방법 좌측 QR코드 스캔 후 설문조사 문항에 응답
설문기간 2023.12.01. ~ 2023.12.15.
설문내용 콘텐츠 내용, 디자인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당첨발표 2023.12.15. 선물 당첨자 개별 연락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설문 제출 시 정확한 연락처 및 주소를 기재하셨는지 확인 바랍니다.

2023년 12월 호

독자퀴즈

아이좋아 경남교육 12월 호를 집중해서 읽은 독자들만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읽고 정답을 맞혀보세요.

1. 〈요즘아이 별별꿈〉 코너에 소개된 구민정 양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무엇일까요? (객관식)

① K팝 ② 트로트 ③ 국악 ④ 클래식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키오스크 '오키'와 수어대화도우미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한 양산여중 창업동아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객관식)

① 스트로우 ② 스트로베리 ③ 스트라이크 ④ 배리어프리

3. 가야산 자락 옛 숭산초등학교에 재탄생한 힐링 독서체험공간으로 독서와 공연, 놀이, 캠프가 공존하는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답형)

4. 경상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사회적 돌봄 모델로 제시한 거점통합돌봄센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답형)

11월 독자퀴즈 정답과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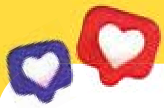
- **정답** **1.** ③ 새 **2.** ② 11월 16일 **3.** 생태전환교육 **4.** 안전매핑동아리
- **당첨자** 밀양 미리벌초 박세호 / 사천 동성초 김가영 / 창원 북면초 고다인

독자퀴즈 정답 보내실 곳

정답과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교직원 및 학생인 경우)을 기재해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제출 기한** 2023년 12월 15일까지
- **보내실 곳**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전자우편(gne8@hanmail.net)
- **문의** 055-278-1788

* 유의사항 :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 정보가 누락될 경우 정답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읽고 느낀 점이나 좋았던 점 또는 소개하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자유 형식)를 아래로 보내주세요.

- **제출 기한** 2023년 12월 15일까지
- **보내실 곳**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 **전자우편** gne8@hanmail.net
- **전화번호** 055-278-1788

경남교육 SNS

경남교육 정책과
주요 행사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 카카오채널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블로그 | 아이좋아 경남교육 웹진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경상교육 아이좋아 전자도서관

전자책 ·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이 용 안 내

경상남도교육청
아이톡톡 계정 하나로
베스트셀러를 예약이나 대기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

12만권의 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잡지 콘텐츠 제공
(매월 1,000여권 신간 업데이트 예정)

서비스기간 2023.11.01.(수)~12.31.(일)

서비스대상 경상남도교육청 아이톡톡 계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생, 교원 등)

이 용 방 법 경상남도교육청 뉴탭 내 아이좋아 전자도서관 클릭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